

지역 매아리



부안서, 의경·의경어머니회 김장담그기 봉사활동 펼쳐

부안경찰서(서장 이동민)는 6일 하서면 게이트볼장 내에서 의경들과 의경어머니회(회장 김현희)가 함께 한 연말연시 사랑의 나눔문화 확산 및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할 김장하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에 실시한 사랑의 김장담그기 봉사활동에는 부안경찰서 의무경찰과 어머니회 회원 등 2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함께 담근 김치는 관내 독거노인, 소년 소녀 가장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동민 서장은 "부안경찰서 의경과 의경어머니회가 연말연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매우 뜻깊은 일을 하겠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찾아 사랑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부안 하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긴급구호비 지원방안 협의

부안군 하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문숙자·서순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력배분 사업비 600만 원 중 지역특화사업 '홀몸노인 밀반찬 지원사업'으로 299만 원을 집행했으며 긴급구호비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려고 정기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10명의 의원이 참여하였으며 지역특화사업 원료 보고 및 사례관리대상자인 장애인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외부 화장실 설치) 지원을 결정하였으며 연내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하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서순자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첫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기쁘며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의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고부농민봉기의 위상 재정립

정읍시, 14일 연지아트홀서 동학농민혁명 기념 학술대회 개최

제123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 학술대회가 열린다.

오는 14일 오후 1시 연지아트홀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정읍시가 주최하고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가 주관한다.

주제는 '동학농민혁명과 고부농민봉기의 의의'이다.

시는 "동학농민혁명 제123주년을 기념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인 고부봉기에 대한 잘못된 평가를 바로잡고 혁명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고부봉기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학술대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부농민봉기 지도자와 동학교단과의 관계를 원광대 강호숙 교수가 ▲고부농민봉기의 전개과정을 발표한다. 또 동학역사문화연구소 조광환 소장이 ▲사법통문의 연구동향과 역사적 가치를,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김영진 이사장이 ▲동학농민혁명의 기념일 제정을 위한 활동의 비관적 고찰, 고려대 임형진 교수가 ▲동학혁명법 개정의 필요성과 현실적 대안에 대해서 발표한다.

김생기 시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되고 논의·토론된 내용이나 의견 등은 이후 혁명 선양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며 전국 동학관련 단체 회원과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김영진 이사장도 "동학농민혁명 국가 기념일 제정과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는데 시민들의 마음과 의견을 모으는 귀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김생기 정읍시장, 서래봉회 송년 모임 참석

시 주요사업 국가예산 확보 요청·고향 발전 참여 당부



지난 5일 서래봉회 송년 모임에 참석한 김생기 시장

김생기 시장이 지난 5일 저녁 세종정부종합청사 정읍 출신 공무원 모임인 서래봉회 송년 모임에 참석했다.

김생기 시장이 지난 5일 저녁 세종정부종합청사 정읍 출신 공무원 모임인 서래봉회 송년 모임에 참석했다. 시에 따르면 서래봉회는 지난해 7월

친목 도모는 물론 정읍시 현안사업 관련 국가예산 확보를 비롯 다방면에 걸쳐 고향 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당일 모임에는 김시장을 비롯 모두 22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회원들은 화기에예한 분위기 속에서 정담을 나누고 고향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특히 내년 신입 회장으로 국가보훈처 이재이 위원을 선출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김시장은 올해 펼쳐온 정읍의 현안사업 관련 국가예산 확보 활동 노력과 국가 예산 반영 상황을 설명하고, "올해 반영되지 못한 예산이 내년에는 정부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시장은 특히 "그동안 고향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고향 발전에 큰 도움을 준 향우회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각별한 애정을 갖고 고향 발전에 힘을 모아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수돗물 시민 신뢰도 UP ↑

매월 수질검사 결과 시청 홈페이지 공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에 총력을 쏟고 있는 정읍시가 매월 수돗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있다.

시는 옥정호에서 흘러내린 동진강 원수(原水, 7개 항목)를 비롯 산성수정수(산성 먹는 물 수질기준 항목), 20개 지역 수도꼭지를 매월 측정해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물이야기/

실시간 정보)와 정읍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특히 시내 6개 동의 수돗물 수질 검사 결과는 제일고 사거리에 있는 전광판을 통해서도 알리고 있기도 하다. 또 매분기 16개소의 급수과정별 시설도 12개 항목에 걸쳐 검사하고 있고, 수질 민원이나 수질 검사 신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탁도나 잔류염소 등 5개 항목에 대한 검사 후 현장에

서 결과를 알려준다.

시는 "이뿐만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돗물의 수질을 검사해 보고 싶은 시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을 직접 방문해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현장에서 직접 알려주는 '수돗물 안심확인제'도 운영해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정책이 먹는 물에 대해서는 법령을 강화 철저한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어 수돗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 공급에는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농협 고향·농가주부모임 '행복한 밥상·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부안농협(조합장 김원철)의 고향주부모임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이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부안복지관에서 '행복한 밥상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가졌다.

추워지는데 겨울나기가 힘든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행복하다"며 "작은 일이지만 김치를 통해 함께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다"고 흐뭇해 했다.

이날 고향주부모임, 농가주부모임 임원들이 담은 사랑의 김장 김치는 장애인 다문화, 조손 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김치를 나눔으로써 따뜻한 정과 훈훈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했다.

김원철 조합장은 "눈보라가 치는 한 겨울에 우리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담은 사랑의 김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 김모씨는 "날씨가 점점

/부안=이옥수기자

군민의 행복한 삶 위한 탁월한 행정력 인정

박우정 고창군수 '호남유권자 최우수 단체장상' 수상

박우정 고창군수가 군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발전을 위한 탁월한 행정력을 인정받아 '2017 호남유권자 최우수 자치단체장상'을 수상했다.

어업인의 경쟁력을 키우는 농어업발전,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고창 등 군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현장행정을 추진해왔다.

2017 호남유권자 최우수 자치단체장상 시상식은 호남유권자연합이 주최해 지난 5일 오후 광주 리미티호텔 대연회에서 열렸다.

또한 주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고, 기업의 지역 투자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는 물론 친환경정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면서 자연생태관광도시의 성공모델을 제시해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이끈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 상은 호남(전남, 전북, 광주)유권자연합에서 한 해 동안 투명하고 뛰어난 행정 리더십으로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큰 공적을 일궈낸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각계 명사를 선정해 표창하는 상이다.

박우정 군수는 "앞으로도 잘 보존 관리된 자연생태환경을 성장동력 삼아 친환경·친자연 정책을 핵심으로 자연과 사람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찾아와 정착하고 싶은 행복한 고창군을 완성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박우정 군수는 민선 6기 고창군정을 이끌면서 친환경농업발전과 획기적인 농특산물 마케팅을 비롯해 품격 높은 문화예술환경을 구축하고 문화·역사자원을 자연생태자원과 연계·결합해 부가가치를 높이며 농

업인의 경쟁력을 키우는 농어업발전,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고창 등 군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현장행정을 추진해왔다. 또한 주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고, 기업의 지역 투자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는 물론 친환경정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면서 자연생태관광도시의 성공모델을 제시해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이끈 성과를 인정받았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서, 행정관·주무관 애로사항 청취

고창경찰서 청문감사실은 소리 없이 직분을 다하는 행정관·주무관들과 티타임을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조옥희 주무관은 "동료들과 아끼고 배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부심을 갖고 맡은바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가족의 일원으로 읍지에서 열심히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지만 그 노고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행정관·주무관들과 마음의 폭을 갖고 업무 중 고충 및 건의사항들을 청취 유무성 있고 따뜻한 동료애가 넘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자리였다.

박원수 서장은 "전 직원이 소통·배려를 실천할 때 갑질 및 성 비위 등의 의무위반 행위는 사라질 것으로 출근하고 싶은 직장이 되도록 모두가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a mulberry wine bottle and a glas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There are also images of gift sets and a cartoon bear mascot.